

김동영, 네잎 클로버의 노래

서성록

김동영이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네잎 클로버이다. 이곳저곳에 동지를 튼 크고 작은 클로버들은 질화로같이 따듯한 온기가 남아있는 추억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가 누구나 경험했을, 어릴적 산과 들을 헤집고 다녔던 기억들을 불소시게처럼 휘적거리 아득함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황창순 시인의 '네잎클로버'란 시에는 “어릴 적 잔디밭에 꿈을 찾아 노닐다가 풀꽃만지 한두 번 손가락에 끼워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행운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그대는 네 잎의 날개를 달고 기쁨을 선사했네”란 구절이 나온다. 분명 김동영의 회화작품을 볼 때도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의 회화는 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의 재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자연의 재현 자체를 겨냥했다면 '사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테일에 더 신경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작품은 오히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상징성을 띠면서 여러 색채와 질료와의 어울

네잎클로버의노래(A song of Four leaves Clover)-140x140cm-Mixed Media-2011



김동영의 회화는 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의 재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자연의 재현 자체를 겨냥했다면 '사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테일에 더 신경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작품은 오히려 네잎 클로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상징성을 띠면서
 여러 색채와 질료와의 어울림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림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그의 작품을 볼 때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조형적인 부분, 즉 산뜻하거나 그윽한 색감과 확산적인 공간감이다. 그의 공간은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뭇잎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확장되어가는 속성을 지닌다. 마치 사각의 틀에 매이지 않는 전면회화(all-over painting)의 그것처럼 바깥으로 뻗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조형적 내재성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경쾌한 필선'과 '담백한 질료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검토해보면, 첫째 그의 화면에서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경쾌한 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윤필의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놓은 것에서 액센트를 가한 것, 묵직한 힘이 실려있는 것, 날쌔게 제비가 물을 차고 올라가듯 날렵한 것, 낙서하듯 자유롭게 그른 것까지 여러 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필선은 화면에 운동감을 주면서 그림을 흥겹고 경쾌하게 만든다. 그림에 활력이 넘치는 것은 구김살없는 필선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그의 그림은 여러 재료에 의해 구축되는 '담백한 질료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화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밀칠과 지우기, 그리고 다시 채색과 같은 요인의 반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화면의 정황을 살펴보면 마치 도장처리한 듯 매끈한 면이 있는가 하면 푹배기처럼 우툴두툴한 면, 솜이불처럼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의 면이 있다. 같은 화면에서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작가는 입자가 굵은 돌가루를 섞고 캔버스를 오려붙이는 등 무엇보다 바탕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근래에는 돌가루와 콜라주를 사용하여 잔잔한 조형의 울림을 지닌 깊이감있는 공간을 구축해내고 있다.

왜 작가는 이토록 화면의 질료감에 공을 들일까? 질료감은 재료를 자

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기량과도 상관이 있지만 사실 재료의 버무림을 잘 해야 그림이 맛깔스러워진다. 바탕의 질료감이란 눈발과 같아서 비옥한 농지가 되어야만 풍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추상회화처럼 이미지가 별로 없고 색채와 필선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더욱 질료가 지닌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질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필수적인 항목이 된다. 만일 눈발이 거칠고 메말라 있다면 만족할만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듯이 그림에 있어서도 비옥한 바탕이 전제될 때 비로소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찌게의 맛을 내려면 잘 우려낸 육수를 써야하듯이 말이다. 김동영의 질료감은 이런 기본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경쾌한 필선'과 '담백한 질료감'을 그의 작품의 특징으로 든 것은 그의 작품을 떠받치는 조형적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두 요인이 중핵적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색채의 부분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의 화면에서 우리는 분홍색, 초록과 청록, 갈색, 코발트, 잿





네잎클로버의노래(A song of Four leaves Clover)-72,5x72,5cm-Mixed Media-2011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축복의 연속’
이라고 여기며,
행운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안에 있고,
자신의 삶속에
있다고 본다.

빛 등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그가 특정한 색조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식물성 이미지의 생명력을 표출할 수 있게 순도 높은 색상을 사용해왔으나 근래에는 저채도의 차분한 색조가 자주 목격된다. 종전 작품이 바이올린의 경쾌하고 가벼운 음색이라면, 근작은 첼로의 묵직하고 기품있는 음색을 지닌다.

몇몇 작품에선 신라 토기를 연상시키는 기와색조가 눈에 띈다. 물감으로 얻은 색조가 아니라 자연이 조성한 것같은 무채색은 세월의 나이가 켜켜이 새겨있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뒤에 찾은 어떤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안겨준다. 그 색은 인공의 색이 아니라 신비를 머금고 있는 색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의 작품은 네잎 클로버로 가득 차 있다. 네잎 클로버가 그토록 많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 뭔가 뚜렷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연 작가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에 애착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네잎 클로버의 꽃말인 ‘행운’은 우리가 예상치 않게 횡재를 하거나 수지를 맡았을 때 찾아온 복을 일컫는다. 가령 전혀 기대하지 않은 횡재를 했을 때 우리는 ‘행운을 잡았다’고 말한다.

작가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를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축복의 연속’이라고 여기며, 행운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안에 있고, 자신의 삶속에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삶의 통찰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삶 자체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 선물로 여겨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행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탄생이 그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엄청난 양의 폭우가 퍼붓듯이 그렇게 쏟아져 내린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요 우리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고심(自高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욕망의 올라미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트래헴(Thomas Traherne)이 그랬듯이 김동영은 세상을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 “장엄한 시원” “빛과 평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어찌 인생에 황홀한 무지개빛만 있으라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어떻게 ‘나날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자신의 일상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성소요 계시의 장소로 여긴다. ‘네잎 클로버’는 일상속에 편재하고 있으므로 매순간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의 작품을 보면 영혼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환희에 몸을 내맡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환희가 작품의 일상음료와 양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예술가가 이런 환희를 작품안에 저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젊음의 활기를 잃고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라면 피클을 만들고 보존하듯이 기쁨의 기락이 자신을 절이고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그 기쁨이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게 하려면 항구적인 영원의 샘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구가 낮에 밝은 것은 태양이 비추고 있음 때문이요 밤에 환한 것은 달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듯이 자아가 환희에 휩싸이는 것은 진리의 접목 또는 조명없이 생각하는 어렵다. 필자는 실재와의 만남과 진리의 구속이 이전에 깊고 심오한 세계를 경험했던 신앙인들처럼 김동영의 회화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는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